

서울 프라임 오피스

오피스 - 한국 - Q2/2026

savills



신규 공급 본격화 및 선별적 투자 지속

주요 시사점

- 서울 프라임 오피스의 순흡수면적이 2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공실률이 이전 분기 대비 0.2%p 상승하였으나, 2026년 6월 말 기준 4.2%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GBD는 건조한 임차수요를 바탕으로 공실률 1.7%를 유지하며 주요 권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제한적인 공급 속 명목 임대료가 사상 처음으로 CBD를 상회(136,200원/평)하는 모습을 보였다.
- 2026년 2분기 서울 오피스 매매시장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증권빌딩 등 장기 임차인을 확보한 우량 자산(Core)과 사옥 활용 목적의 대형 거래를 중심으로 선별적 투자 양상이 나타났다.
- 현재는 안정적인 Cap. Rate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금리 기조와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이 지속될 경우 향후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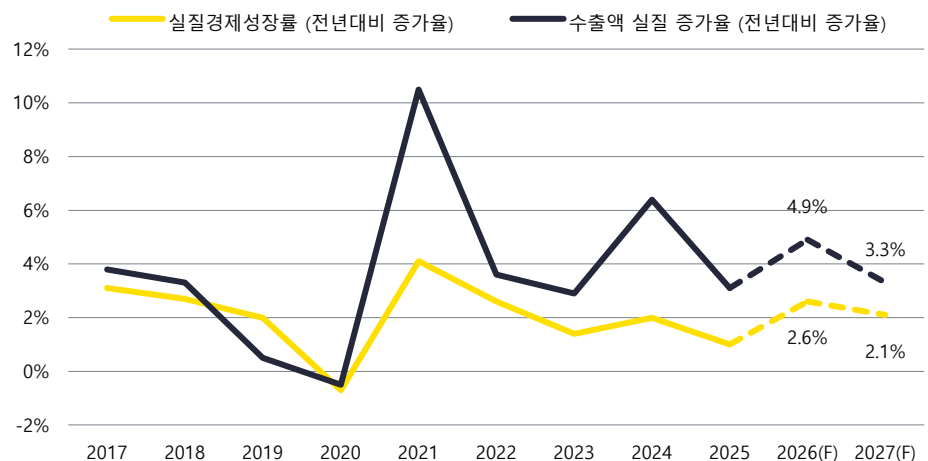
2020년 그랜드센트럴 준공 이후 프라임 오피스 공급 공백이 이어졌던 CBD에서는 2026년 2분기 G1 Seoul(143,432 sqm)과 르네스퀘어(60,387 sqm)가 준공되며 신규 프라임 오피스 공급이 본격화되었다. 다만, 두 자산 모두 본격적인 임대활동은 다음 분기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분기 공실률 산정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G1 Seoul은 현재 임차인 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진행 중이며, 르네스퀘어는 2026년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의 본청 및 서울청 사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연내에는 이을타워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며, 2027년에는 신규 프라임 오피스 공급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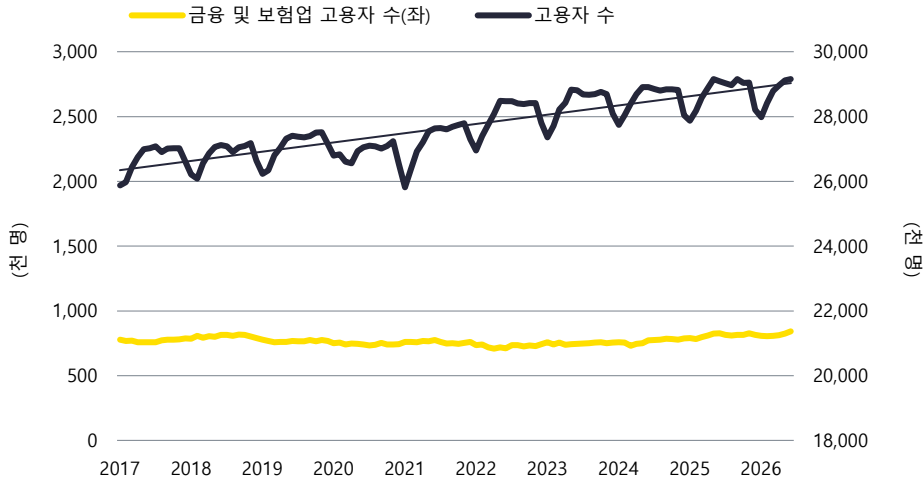
한국은행은 2026년 5월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2026년 GDP 성장률을 2.6%로 전망하며, 반도체 수출 호조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차트 1: 실질 GDP 성장률 및 실질 수출증가율, 2017년 - 2027년 (전망)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 2026.05)

차트 2: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수 추이, 2017년 1월 - 2026년 6월



출처: 국가데이터처



최근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Cap. Rate의 상방 압력은 이전 분기보다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SAVILLS RESEARCH

표 1: 프라임 오피스 권역별 월임관리비 및 공실률, 2026년 2분기

단위: 원/3.3 sqm, GLA

권역	임대료		관리비		순흡수면적 (sqm)	공실률(%) (전분기 공실률)
	평균	전년동기대비 인상률(%)	평균	전년동기대비 인상률(%)		
CBD	135,200	4.5%	51,300	3.8%	-16,300	6.0% (5.5%)
GBD	136,200	6.3%	46,500	2.3%	100	1.7% (1.7%)
YBD	115,500	3.6%	48,000	2.5%	4,700	4.2% (4.4%)
전체	131,300	4.9%	49,000	3.0%	-11,600	4.2% (4.0%)

출처: 세빌스 코리아

집행 등을 반영해 기존 2월 전망치(2.0%) 대비 0.6%p 상향 조정하였다. 다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고유가 장기화 가능성과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은 향후 성장의 주요 하방 리스크로 제시하였다.

글로벌 경제는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경기 호조가 성장을 견인하겠으나, 중동발 원자재 공급 차질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며 하반기부터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겠지만, 에너지 인프라 복구와 재비축 수요 등으로 하락 속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수요와 공실률

2026년 2분기 서울 프라임 오피스 순흡수면적은 -11,600 sqm로 집계되었고,

평균 공실률은 이전 분기 대비 0.2%p 상승한 4.2%로 조사되었다.

권역별로는 CBD가 주요 권역 중 유일하게 순흡수면적이 감소하여 -16,300 sqm를 기록하였으며, 공실률은 이전 분기 대비 0.5%p 상승한 6.0%로 조사되었다. 그랜드센트럴에서 6개 층(약 12,600 sqm)을 사용하던 한화오션은 대신343으로 이전하며 12,300 sqm 공실을 해소해 해당 자산의 공실이 모두 해소되었다. LX광화문빌딩(전 LG광화문빌딩)에서는 LG 생활건강이 서울시티타워로 이전하며 약 2,600 sqm의 공실을 해소하였다. 한편, 법무법인 태평양이 센트로폴리스에서 약 4,900 sqm, 서민금융진흥원 역시 그랜드센트럴에서 약 2,100 sqm를 각각 증평하며 공실을 해소하였으며, CJ올리브영 또한 사육인 KDB 생명빌딩에서 기존 타 임차인이 사용하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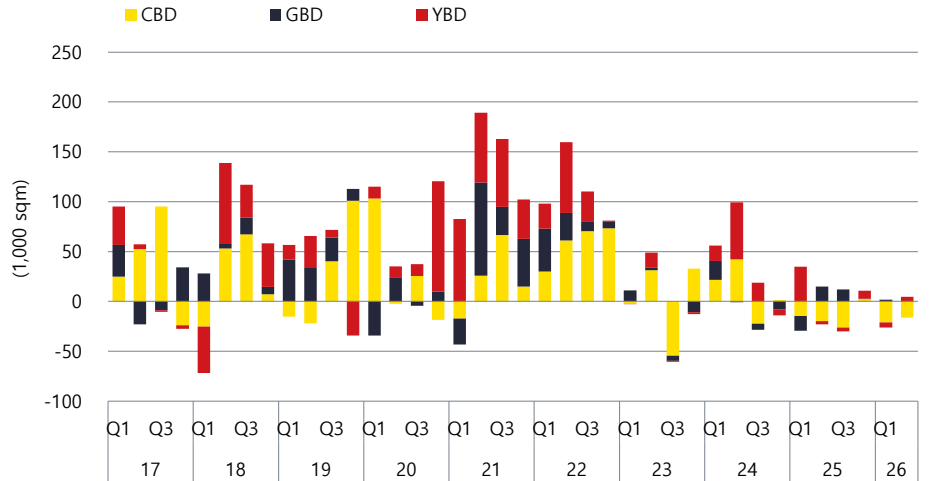
공간을 추가로 증평하며 2,700sqm의 공실을 해소하였다.

반면, 이번 분기에는 대규모 공실이 다수 발생하면서 전체 순흡수면적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소공동 일대의 한화그룹 소유 빌딩(한화소공빌딩, 더플라자호텔, 태평로 한화금융센터)의 리모델링 추진에 따라 태평로 한화금융센터에서 하나은행(약 6,500 sqm)과 음악수익증권 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약 2,300 sqm)가 퇴거하였다. 또한 사무공간 효율화 및 비용 절감을 추진 중인 SK그룹은 종로타워에서 SK온(약 8,100 sqm), 센트로폴리스에서 SK 텔레콤(약 7,300 sqm)이 각각 퇴거하면서 대규모 공실을 발생시켰다. 이와 함께 파인에비뉴B에서는 2.5개 층(약 6,300 sqm)을 사용하던 천애저축은행이 논현동으로 이전하며 신규 공실이 발생하였다.

GBD에서는 순흡수면적이 보험세를 기록하며 공실률은 3개 분기 연속 1.7%를 유지하였다. 파르나스타워에 본사를 둔 화장품 제조업체 더파운더즈는 지속적인 사업 성장에 따라 글라스타워 2개 층(약 4,000 sqm)을 추가 임차하며 면적을 확장하였다. 빗썸금융타워에 본사를 둔 화장품 제조업체인 크레이버코퍼레이션(약 2,100sqm) 역시 이번 분기에 강남파이낸스타워에 추가로 입주하며 사무실 면적을 확장하였다. 이전 분기 강남파이낸스플라자에서 포스코타워역삼으로 이전했던 테슬라(약 1,600 sqm)는 이번 분기에 센터필드에도 추가 입주하며 잔여 공실을 해소하였다. 또한 아이콘 삼성에서 약 2,000 sqm를 사용하고 있던 침대 제조업체인 시몬스코리아는 파르나스타워로 이전하면서 임차면적을 약 3,000 sqm로 확대하였다. 반면 롯데물산의 공유오피스가 빗썸금융타워에서 퇴거하며 약 5,300 sqm 공실이 발생하였고, 클로버게임즈의 파산으로 삼성화재 서초타워에서도 약 2,500 sqm의 공실이 발생하였다.

YBD에서는 노후 빌딩의 재건축에 따른 임차인 이동이 지속되었다. 1984년에 준공된 미래에셋증권빌딩(연면적 39,087 sqm)의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미래에셋증권 일부 조직이 FKI Tower로 이전하여 10,300 sqm 공실을 해소하였다. 원센티널에는 우리투자증권이 약 2,400 sqm, Parc.1 Tower 1에는 애플이 약 1,400 sqm를 각각 증평하였다. 반면, SK그룹(약 3,000 sqm)은 FKI Tower에서 퇴거하면서 사무공간 효율화를 이어갔으며, 반도체, 센서 및 광학솔루션 관련 제품을 제공하는 ams OSRAM도 퇴거하면서 약 1,900 sqm 공실이 발생하였다. 이외에도 소호 사무실을

차트 3: 순흡수면적, 2017년 1분기 - 2026년 2분기



출처: 세빌스 코리아

사용하던 일부 임차인들의 퇴거가 이어졌으나, 미래에셋증권, 애플 등 대형 임차인들이 임차 면적을 확대하여 YBD의 순흡수면적은 약 4,700 sqm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공실률은 지난 분기 대비 0.2%p 하락한 4.2%를 기록하였다.

임대료와 관리비

2026년 2분기 서울 프라임 오피스 평균 임대료는 131,300원/평으로 집계되었으며, 권역별로는 CBD 135,200원/평, GBD 136,200원/평, YBD 115,500원/평을 기록하였다. 서울 프라임 오피스 임대료는 전년 동기 대비 4.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역별로는 CBD 4.5%, GBD 6.3%, YBD 3.6%의 인상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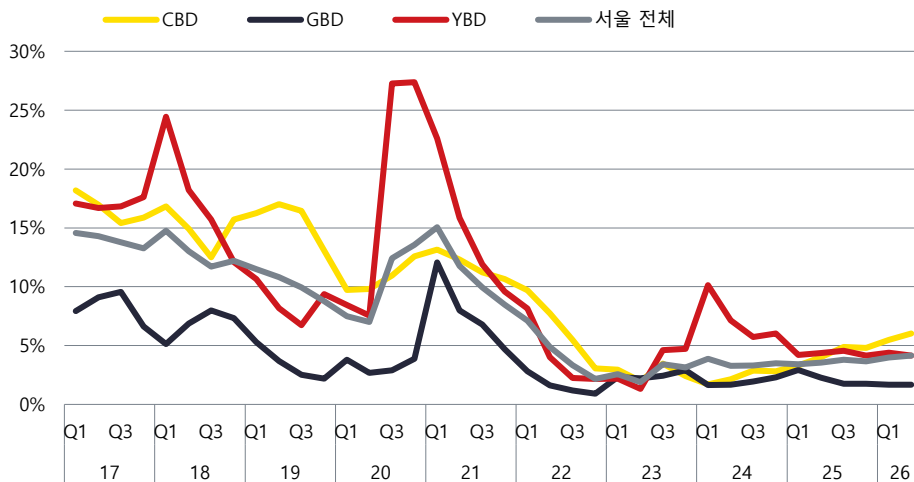
기록하였다. 이는 당사가 분석을 시작한 1997년 이래 처음으로 GBD의 명목 임대료가 CBD를 상회한 것으로, 최근 수년간 지속된 견조한 임차수요와 제한적인 신규 공급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YBD는 최근 신규 공급 자산의 임대 안정화가 진행되면서 임대료 인상률이 전년 대비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 프라임 오피스 평균 관리비는 49,000원/평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상승하였으며, 권역별로는 CBD 3.8%, GBD 2.3%, YBD 2.5%의 인상률을 기록하였다. 최근 관리비 인상률은 전 권역에서 2~4% 수준의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며,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률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전망

CBD는 G1 Seoul과 르네스퀘어의 공급 및 다수의 대형 임차인 퇴거가 예정되어 있어 공실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대범죄수사청이 본청 및 서울청 사옥으로 르네스퀘어 전 층을 사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입주는 올해 10월로 파악되었다. 트윈트리타워에 SK에코엔지니어링(11,000 sqm)과 NH농협은행(4,900 sqm)이, 그레이츠 송레에는 신한은행(TS) 조직(약 5,900 sqm)과 대우산업개발(약 2,100 sqm)이, 퍼시픽타워에서는 SK네트웍스서비스(약 3,200 sqm) 등 다수 임차인의 퇴거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그랜드센트럴 내 한화오션이 비운 공간에는 AIA타워에서 엔카닷컴이 이전할 예정이며, 태평로 한화금융센터에 위치한 한화라이프랩 또한 그랜드센트럴로 이전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차트 4: 프라임 오피스 공실률, 2017년 1분기 - 2026년 2분기



출처: 세빌스 코리아

표 2: 주요 임차인 이동, 2026년 2분기

이동 후				이동 전	
권역	빌딩명	임차인	임대면적 (sqm)	권역	빌딩명
CBD	대신343	한화오션	12,300	CBD	그랜드센트럴
	센트로폴리스	법무법인 태평양	4,900	증평	
	KDB생명빌딩	CJ올리브영	2,700	증평	
	서울시타워	한국재정정보원	2,700	증평	
		LG생활건강	2,600	CBD	LX광화문빌딩
	그랜드센트럴	서민금융진흥원	2,100	증평	
	연세재단빌딩	대흥기획	1,500	증평	
GBD	글라스타워	더파운더즈	4,000	증평	
	파르나스타워	시몬스	3,000	GBD	아이콘삼성
	강남파이낸스센터	크레이버코퍼레이션	2,100	증평	
	센터필드	테슬라	1,600	GBD	포스코타워역삼
YBD	FKI Tower	미래에셋증권	10,300	YBD	미래에셋증권빌딩
		골드스톤자산운용	500	YBD	CCMM빌딩
		로프티록인베스트먼트	300	YBD	NH금융타워
	원센티널	우리투자증권	2,400	증평	
	Parc.1 Tower 1	애플	1,400	증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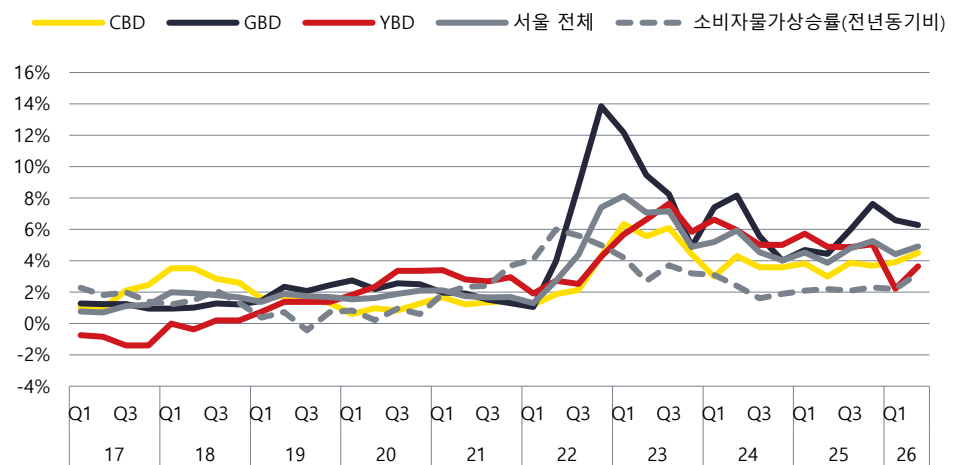
출처: 세빌스 코리아

또한 KDB생명빌딩에서는 한 개 층을 사용 중인 텔레퍼모نس가 파인에비뉴B로 이전할 예정이며, 4개 층을 사용 중인 구글코리아도 퇴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5개 층은 모두 CJ올리브영에서 증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으며, 이에 따라 KDB생명빌딩은 저층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모두 CJ올리브영이 사용하게 된다.

이처럼 다수의 임차인이 CBD 내의 공실을 해소할 예정이나 신축 자산의 공급과 다수의 대형 공실 발생이 동시에 예정되어 있어 CBD의 공실률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GBD에서는 일부 임차인의 퇴거가 예정되어 있으나, 주요 기업들의 증평과 예정된 후속 임차인이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빗썸은 빗썸금융타워에서 약 8,900

차트 5: 권역별 전년동기대비 임대료 상승률, 2017년 1분기 - 2026년 2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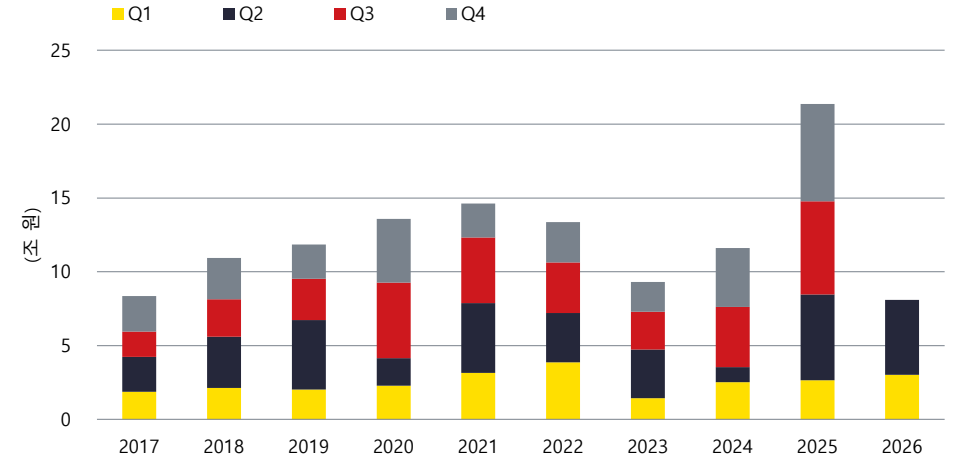
출처: 세빌스 코리아

sqm, 삼성증권은 삼성화재 서초타워에서 약 2,500 sqm를 각각 증평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센터필드에서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엔트로픽과 글로벌 제약사인 사노피아 각각 3,800 sqm 공실을 해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3분기 GBD의 공실률은 소폭 하락하거나 이번 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YBD에서는 일부 임차인의 퇴거가 예정되어 있으나, 대형 임차인들의 신규 입주에 이어지면서 공실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NH농협캐피탈이 NH농협캐피탈빌딩에서 원센티널로 이전해 7개 층(약 14,000 sqm)에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으며, NH농협캐피탈 입주시 원센티널의 공실률은 약 7%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Parc.1 Tower 1에는 화장품 도소매업체인 신미글로벌, 라치프자산운용, 프라다가 신규 입주하여 총 약 9,200 sqm 공실을 해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Parc.1 Tower 2는 저스트코리아의 신규 지점을 개설할 예정이다.

서울 프라임 오피스 시장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순환수면적이 감소하였으나, 기존 시장에서 이전 가능한 공실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임차인 이동 역시 제약을 받아왔다. 2분기 G1 Seoul과 르네스퀘어가 준공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이을타워의 공급도 예정되어 있어, 시장 내 가용 면적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이전 및 확장 수요에 따른 임차인 이동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트 6: 프라임 오피스 거래규모, 2017년 1분기 - 2026년 2분기



출처: 세빌스 코리아

매매 및 투자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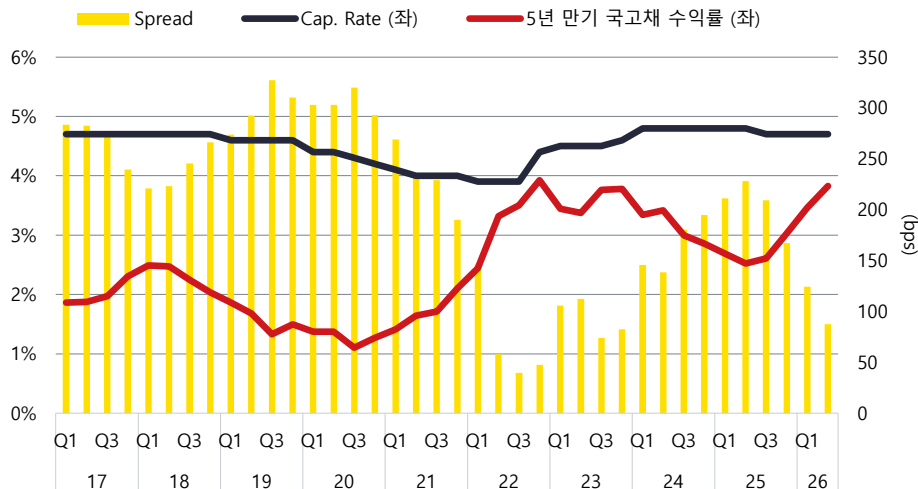
2026년 2분기 서울 오피스 투자시장 총 거래 규모는 IFC Seoul의 지분 거래를 포함하여 약 5.1조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전년 동기(5.8조 원) 대비 약 13% 감소하였다. 전 분기에 이어 다수의 대형 거래가 성사되었음에도 10년 내 최대규모를 기록한 2025년 2분기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높은 자금 조달 비용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은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 임차인을 확보한 우량 자산과 사옥 활용 목적의 실수요 거래를 중심으로 선별적인 투자는 이어졌다. 또한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기대되는 Core 자산뿐만 아니라 임대료 상승 등을 통한 가치 제고가 가능한 Value-add 자산에도 투자 수요가 이어지며 다양한 투자 전략이 나타났다. 향후 금리 환경과 자금 조달 여건이 안정될 경우, 2025년 이후 설정되어 대기 중인 블라인드 펀드가 점진적으로 시장에 유입되며 거래 활동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의도 하나증권빌딩은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 약 8,112억 원에 매입하였다. 장기 임차인인 하나증권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최종적으로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 거래를 종결하였다. 이에 따라 하나증권은 2015년에 매각한 사옥의 소유권을 약 11년 만에 다시 확보하게 되었다. 해당 거래의 연면적당 평단가는 약 3,840만 원/평으로, YBD 오피스 거래 사례 기준 가장 높은 평당 가격을 기록하였다.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사옥 확보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핵심 업무권역 내 우량 자산에 대한 실수요 기반 거래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장기 임차인이 직접 자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향후 여의도 오피스 투자시장에도 의미 있는 거래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KT투자운용이 보유하고 있던 을지트윈타워 서관 및 리테일 시설은 퍼시픽자산운용이 6,570억 원에 매입하였다. 퍼시픽자산운용은 국민연금의 Value-add 블라인드펀드를 활용하여 본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스 부분은 대우건설이 2029년 상반기까지 마스터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안정적인

차트 7: 프라임 오피스 CAP. RATE 추이, 2017년 1분기 - 2026년 2분기



출처: 세빌스 코리아, 한국은행

표 3: 주요 거래사례, 2026년 2분기

권역	빌딩명	매도자	매수자	구분	매매가격 (억 원)
CBD	을지트윈타워	KT투자운용	퍼시픽자산운용	Asset Deal	6,570
CBD	이마트타워	NH아문디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Asset Deal	3,500
GBD	여삼빌딩	여삼	알레르망	Asset Deal	1,850
YBD	하나증권빌딩	코람코자산신탁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Asset Deal	8,112
Others	구로 G-Tower	넷마블	지베스코자산운용	Asset Deal	6,977
Others	AM플러스 성수 오피스	AM플러스자산개발	캡스톤자산운용	Asset Deal	3,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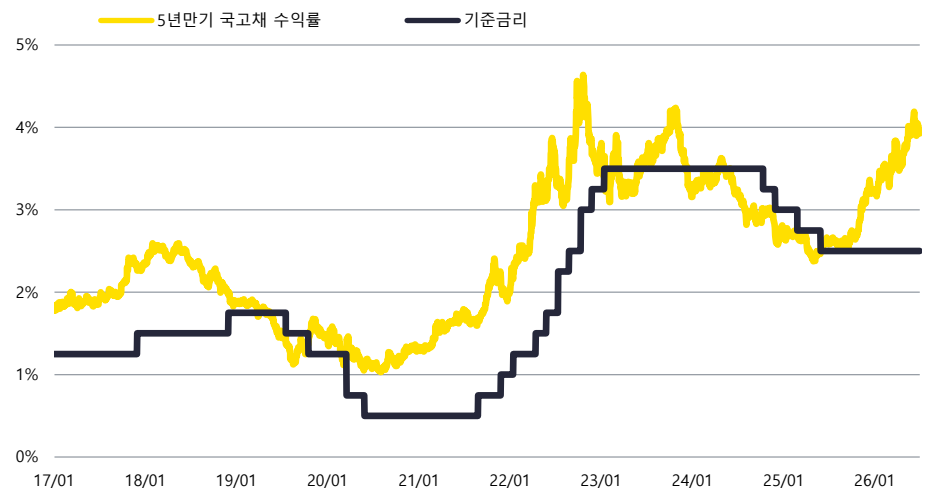
출처: 세빌스 코리아

현금흐름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임대료 수준이 주변 프라임 오피스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임대차 재계약 과정에서 임대료 현실화를 통한 추가적인 자산가치 제고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로 G-Tower는 지베스코자산운용이 매입하였다. 본 자산은 2021년 준공된 신축 오피스로, 넷마블 및 계열사가 전체 면적의 약 80%를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은 2030년까지 체결되어 있다. 이번 거래는 G-Tower 전체 연면적 중 넷마블이 보유한 부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거래 규모는 약 6,977억 원으로 평당 약 1,500만 원 수준에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된다. 향후 넷마블 및 계열사의 사옥 이전 가능성에 따른 임대차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서울 주요 업무권역 대비 경쟁력 있는 임대료 수준과 신축 프라임 오피스라는 희소성을 고려할 때, 임차인 교체 과정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CBD에 위치한 이마트타워(구 오렌지센터)는 한화자산운용이 한화리츠를 통해 3,500억 원에 매입하며 거래가 종결되었다. 본 자산은 NH아문디자산운용이 보유하던 자산으로, 이마트가 성수동 본사 매각 이후 마스터리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잔여 임대차기간은 약 7년 수준으로 알려졌다. 신용도 높은 우량 임차인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과 CBD 핵심 입지에 위치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리츠 편입에 적합한 Core 자산으로 평가된다. 최근 리츠 시장이 우량 자산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가운데, 장기 임대수익을 확보한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래 사례로 볼 수 있다.

차트 8: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및 기준금리 추이, 2017년 1분기 - 2026년 2분기



출처: 한국은행

2026년 2분기 기준 서울 프라임 오피스의 명목 Cap. Rate는 4%대 중후반, 렌트프리를 반영한 실질 Cap. Rate는 4%대 초반으로 추정되며, 이전 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Cap. Rate의 상방 압력은 이전 분기보다 가중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까지는 이러한 시장상황이 반영된 거래가격 조정의 움직임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되거나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이 지속될 경우에는 Cap. Rate의 점진적인 상승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 오피스 시장 및 Savills Korea 조사빌딩 개요

표 4: 조사빌딩 개요, 2026년 6월 기준

		CBD	GBD	YBD	합계
A	빌딩개수	25	14	14	53
	평균 연면적 (sqm)	89,000	107,000	110,000	99,000
	평균 준공연도	2004	2005	2012	2006
B	빌딩개수	24	22	9	55
	평균 연면적 (sqm)	51,000	47,000	48,000	49,000
	평균 준공연도	2002	2002	1999	2001
빌딩개수 총합계		49	36	23	108
면적 총합계 (sqm)		3,450,000	2,530,000	1,980,000	7,970,000

출처: 세빌스 코리아 Research & Consultancy

1. 서울 대형 오피스 빌딩

- 서울시에 입지하고 있는 30,000 sqm 이상의 대형 오피스 빌딩은 100% 사옥으로 사용되는 빌딩을 포함하여 2026년 6월 현재 CBD에 33%, GBD에 19%, YBD에 17%가 밀집되어, 전체의 약 69%가 이들 세 지역에 분포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 Seoul Prime Office 등급에 대한 정의

- Savills Korea에서는 연면적과 위치, 접근성, 가시성, 인지도, 임차인, 준공연도, 빌딩시설,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피스 빌딩의 등급을 정하고 있음.
- CBD, GBD, YBD의 3개 주요 권역에 위치한 30,000 sqm 이상 빌딩 중 상대적으로 우수한 빌딩을 프라임 빌딩이라고 정의함.
- 프라임빌딩 132개 중 108개를 대상으로 서울 오피스시장 동향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하였음.

3. 임대료

- 임대료는 보증금과 월세로 이루어져 있으며, Savills Korea는 건물주가 책정한 기준층 명목임대료(Face Rent)를 조사 및 분석함. 보고서에서 언급된 월임대료는 월세로, 보증금은 월세의 10배임.

4. 순 흡수면적 (Net absorption)

- 해당 기간 동안 오피스 시장 내 증가하거나 감소한 임대면적임.

5. Cap. Rate 산정 방법

- Cap. Rate : (보증금운용이익(5%)+기준층 명목임대료+관리비초과이익)x임대율(95%) x 12 / 거래가, 거래사례별 Cap Rate의 비교를 위해 보증금운용이익은 5%를 일괄적용 함. (2013년까지 95%를 적용했던 임대율은 자연공실을 변동에 따라 2014년부터 90%를 적용하였으며, 2022년부터 다시 95%를 적용함.)

당사가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이에 대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하며, 이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37조에 따라 권리의 침해죄, 부정발행 등의 죄, 출처 명시 위반의 죄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savills

Savills Research

We're a dedicated team with an unrivalled reputation for producing well-informed and accurate analysis, research and commentary across all sectors of the Korean property market. To view copies of our previous publications, go to www.savills.co.kr/insight-and-opinion/#Research



SAVILLS KOREA



Crystal Lee
CEO

+82 2 2124 4163
csjlee@savills.co.kr



Kookhee Han
Senior Director
Investment Advisory2
+82 2 2124 4181
khhan@savills.co.kr



KeeYoung Ha
Senior Director
Investment Advisory1
+82 2 2124 4154
KYHa@savills.co.kr



JoAnn Hong
Senior Director
Research & Consultancy
+82 2 2124 4191
jhong@savills.co.kr



Kyungwon Na
Senior Director
Office Advisory &
Marketing Services
+82 2 2124 4252
kwna@savills.co.kr



Danny Chung
Director
Office Advisory &
Marketing
+82 2 2124 4160
bhchung@savills.co.kr

Savills plc is a global real estate services provider listed on the London Stock Exchange. We have an international network of more than 700 offices and associates throughout the Americas, the UK, continental Europe, Asia Pacific, Africa and the Middle East, offering a broad range of specialist advisory, management and transactional services to clients all over the world. This report is for general informative purposes only. It may not be published, reproduced or quoted in part or in whole, nor may it be used as a basis for any contract, prospectus, agreement or other document without prior consent. While every effort has been made to ensure its accuracy, Savills accepts no liability whatsoever for any direct or consequential loss arising from its use. The content is strictly copyright and reproduction of the whole or part of it in any form is prohibited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Savills Research.